

# 내러티브 연구와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

일본의 구산업 탄광지 지쿠호(筑豊)의 유산과 기억

가와마츠 아카리

번역: 이영진

## 1. 들어가며

민속학/문화인류학에 있어 필드워크와 인터뷰를 하는 행위는 연구/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동시에 이 학문 영역에서 인식론상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의 연구자들이 정리한 독일 민속학의 역사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을 통해[森, 2009; 及川, 2014], 전후의 독일 민속학이 사회적 방법이나 문화인류학에 의한 민속지적인<sup>1</sup>인 방법을 도입하면서, 그 방법론과 인식론을 정교하게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조사지에서 종종 ‘현지의 사람들이야말로 민속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곤 했다. 이는 당시 막연한 인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관해 유익한 관점을 주었던 것이 브리짓 슈미트-라우버의 민속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이다. 그녀는 필드워크와 인터뷰에 대한 논의에서, 인터뷰를 민속지적 실천에 새겨진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민속지적 실천에 반드시 수반되는 재귀성(성찰성), 개방성, 과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인터뷰를 ‘민속지적 인터뷰’로 불러야 한다고 기술한다[Schmidt-Lauber, 2012: pp.567~568].

이 점을 생각하면, 필자가 조사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실로 ‘민속지적 인터뷰’의 실천자였던 것처럼 생각된다. 그들은 필드워크를 하고, 지역사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의 인식에 대해 반성하는데, 이러한 실천은 종종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조사지의 일반인들이 라이프 워크로서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실천을 총칭해서, 이하 본문에서는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아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일상적 민속지 실천’은 어떠한 사회배경 하에서 생겨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인터뷰나 필드워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2) 도쿄에서 온 한 명의 대학원생 신분으로 지역에 들어온 필자 자신은 어떻게 현지 사람들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 속에 들어가, 새로운 인터뷰의 장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조사지에서 일어난 세계유산등록운동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두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이상의 과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을 검토하면서 과거 사건의 기억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현대적 요청 속에서 민속학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

## 2. 조사지 개요: 지쿠호에서 탄광을 둘러싼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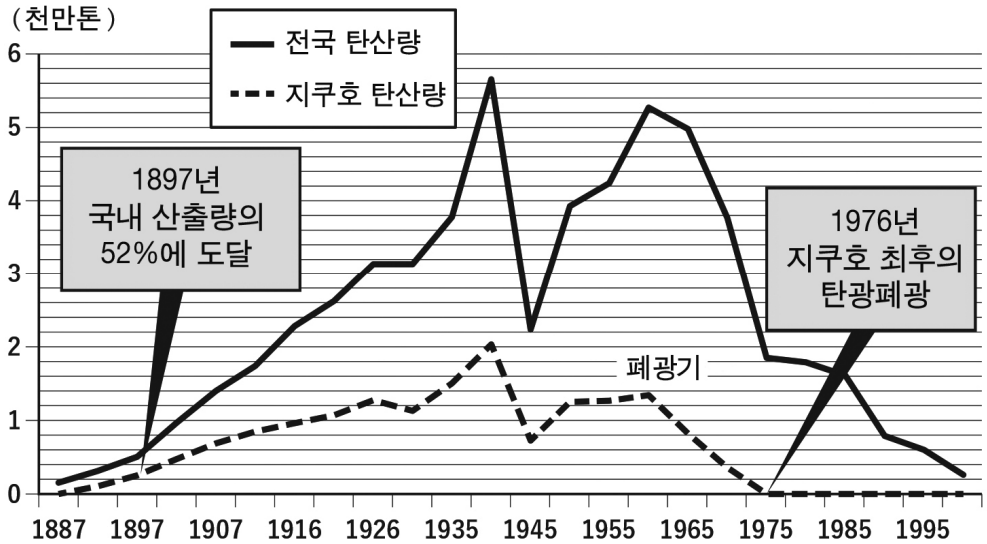
### (1) 지쿠호 지역과 탄광

규슈 지방은 일본의 서남부에 위치한 주요한 섬의 하나이다. 필자의 조사지인 지쿠호는 이 규슈 지방의 북부, 후쿠오카에 위치한 구 산업 탄광지역이다. 2016년 7월 현재의 인구는 41만 3427명이다 [후쿠오카현 기획·지역진흥부 조사통계과 online: ‘인구이동조사 표 1: 헤이세이 28(2016)’. 필자는 지쿠호 지역에서 오늘날 탄광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야기되는가를 구술사 연구·내러티브 연구의 시점에서 조사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1년간의 계획으로 장기 필드워크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013년부터 수차례 조사지를 방문해서, 단기적 필드워크 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지쿠호’는 일본의 근대화가 막 시작되던 시기 후쿠오카 현 북부의 석탄 산출지를 가리켜 사용된 지역 명칭이다. 이 지역에 있던 모든 탄광들이 사라진 지 40년이 지난 현재, 실제 과거 지쿠호 탄광보다도 훨씬 좁은 지역을 가리키는 행정구분으로서 ‘지쿠호’라는 명칭이 남아 있지만, 그 지역명칭의 성립 경위를 생각하면, ‘지쿠호’와 ‘탄광’이라는 이름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민속학에서 의식분석으로서의 이야기 연구를 전개해온 알브레히트 레만은 오늘날 민속학에서 이야기를 연구할 때, ‘행동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그 중심에 놓는다’라고 말하며, 의식분석에서는 ‘이들 사람들의 현재를 묻고, 나아가 그들 개인의 역사, 그들이 처한 환경의 역사, 그리고 거대한 역사를 어떻게 한 개인이 경험하고 이해해왔는가를 질문해 가기’위해, 특히 자전적 텍스트를 중시한다고 말한다[レーマン, 2010; 33]. 이러한 의식분석의 실례로서 레만은 ‘숲’에 관한 경험담이나 추억담 등을 수집하면서, 독일에서 상징적인 존재인 숲을 둘러싼 독일 국민의 의식을 그려낸다[レーマン, 2005].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쿠호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면,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상징은 틀림없이 ‘탄광’일 것이다. 하지만 탄광에 얽힌 자전적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다. 지쿠호 탄광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하, 지쿠호와 탄광의 관계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온가가와(遠賀川)라는 거대한 하천이 흐르는 지쿠호는 고대부터 농촌지대로 발전해왔다. 이 곳이 본격적인 근대 석탄 산출지가 된 것은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된 메이지유신 이래이다. 토착자본이나 중앙자본에 의한 석탄산업 진출이 진행된 지쿠호에서 1897년에 이르면 석탄 산출량이 전국 산출량의 50%를 넘어섰다(표 1참조). 일본의 산업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영 야하타(八幡) 제철소도 지쿠호 탄광과 가깝다는 점을 하나의 조건으로 현재의 위치에 세워져, 1901년에 조업을 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탄광은 ‘전장’과도 흡사해서, 일본이 식민지화한 조선반도 사람들이나 여성, 연합군의 포로도 동원하면서 석탄산출이 계속되었다. 일본의 패전 직후는 연합군총사령부(GHQ)에 의해 일본의 부흥을 위한 석탄우선정책이 취해져, 전쟁 지역으로부터 인양자나 전쟁의 실직자들이 한꺼번에 탄광으로 밀려들었다. 하지만 1949년 전후의 석탄 통제가 해금되고, 19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기가 후퇴하면서, 탄광은 심각한 불경기에 빠지게 된다. 국가가 값싼 외국 석탄이나 석유 수입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 타면서, 탄광은 점점 폐쇄되었다. 이렇게 지쿠호 최후의 석탄 채굴이 끝나는 1976년까지, 겨우 100년 정도 사이에 지쿠호는 석탄산업에 의해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또한 몰락한 것이다.

[표1] 일본의 석탄산업의 변천(国友, 2009: 5], [長弘, 2012: 78]을 참고로 필자작성)



1950년대 말부터는 지쿠호의 석탄 부족과 실업·빈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 전체를 뒤덮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은 1959년에 후쿠오카현의 부인단체가 ‘검은 깃털 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모금활동이다. 이 활동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자 지쿠호의 폐광 지역은 돌연 거대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60년에는 탄광의 폐광에 점차 허덕이는 지쿠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두 권의 상징적 책이 출판되었다. 사진작가 도몬 켄(土門 拳)의 사진집 <지쿠호의 아이들>과 기록문학작가 우에노 에이신(上野英信)의 다큐멘터리 <쫓겨나는 광부들>이 그것이다. 우에노 씨의 다큐멘터리의 편자는 필자에게 이 두 작품이 ‘지쿠호’의 이미지를 어둡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적이 종종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해에는 지쿠호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회봉사단체 ‘학생 캐러밴’도 시작하고 있다[筑豊石炭産業史年表編纂委員会編, 1973: 575]. 지쿠호는 전후의 본격적인 부흥기에 들어서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가는 일본사회 속에서 방치된 ‘문명 속의 벽지’[永末, 1973: 227]로서의 불명 예스러운 지위를 확립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지쿠호의 이미지는 불식되지 못했다. 탄광 폐산 후 지쿠호에는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이 지출되어, 주민들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 쟁탈전과 같은 것도 일어나, 폭력단 등이 엄청 늘었다고 한다. 광산 공해에 의한 지반침하도 심각해졌다. 1969년부터 연재가 시작된 인기작가 이쓰키 히로유키(五木寛之)의 <청춘의 문>도 몇 차례 영화화·드라마화되면서 지쿠호의 스테레오타입을 일본사회에 퍼지게 하는데 공헌했다. 이 소설에서는 폭력과 차별·빈곤으로 가득 찬 지쿠호와 사춘기의 소년의 울적한 심정이 겹쳐져 드라마화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역사의 흐름을 거쳐, 탄광은 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탄광은 지쿠호 지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이 사실을 한 석탄기념관 관장은 “(지쿠호에는) 탄광의 DNA가 있다”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주민들은 지쿠호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거나, 탄광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의 조사 중 여기자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출신지를 물었을 때 ‘후쿠오카입니다’라고 말하며 출신을 숨기는 이야기는 이제 주민들이 지역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는 하나의 전형이 되어버렸다. 또한 필자가 탄광을 조사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한 것만으로, ‘나는 탄광은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얼굴을 찌푸

리는 향토연구자도 있었다.

따라서 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은 지쿠호에서 그렇게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종종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환영 속에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몇몇 고령자 분들은 눈을 반짝이며 탄광과 관련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준 적도 있다. 왜, 지금의 시점에서 지쿠호에서 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한다는 연구테마가 가능해진 것일까.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해당 지역의 매우 현재적인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탄광에 대한 시선이나 이야기방식의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종종 인식되고 있던 것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지역에서의 활동이다. 그럼 다음으로 지쿠호 주변의 세계유산등록운동의 경과에 대해 개관하고 싶다.

## (2) 세계유산등록운동과 탄광에 대한 시선의 변용

2015년 ‘페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이 세계유산에 기재되었다. 이 유산군은 산업의 근대화라는 테마 아래 각지에 흩어진 복수의 자산을 관련 짓는 계열 노미네이션이라는 형태를 취한 점[木村, 2014: 218], 또 추천서 작성에 이르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해외전문가들이 깊게 관여해온 점[아마모토 사쿠베(山本作兵衛)씨의 탄광 기록 및 기록문서의 보존·활용 등 검토위원회 외, 2012: 3]이 특징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시선이 탄광에도 쏟아지게 되면서, 이 산업군의 세계유산 등록운동의 과정은 지쿠호 지역 내의 탄광에 대한 시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계유산에 관한 서적의 저자인 사회학자 기무라 시세이(木村至聖)의 논의에 따르면 애초부터 일본에서 탄광과 같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시설이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게 된 것은 1980년대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문화청이 ‘근대화유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전국조사를 시작했다. 1996년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근대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된다. 나아가 2007년, 경제산업성은 ‘근대화산업유산군’이라는 리스트를 33개의 스토리로 공표했다. 한편 ‘근대화유산’이나 ‘산업유산’에 대한 관심은 중앙행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일부에서는 1980년대부터 마을 만들기·마을 진흥의 자원으로서도 주목되어왔다고 한다[木村, 2014: 3~4].

지쿠호에서 이러한 근대의 흔적을 ‘유산’으로 보는 움직임은 우선 그 주변지역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2006년 규슈·야마구치 지방의 6개 현 8개 시가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13개의 유적 후보 리스트를 결정하고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으로서 문화청에 제안했다[木村, 2014: 218~219; 安蘇, 2010a: 1].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이 예전 지쿠호 탄전의 주요도시 중 하나였던 다가와 시였다. 다가와시에는 미쓰이 광산이 진출, 1964년까지 수직갱으로 대규모의 석탄을 채굴하고 있었다. 미쓰이 다가와 광업소 부지는 현재 ‘석탄기념공원’으로 정비되어, 다가와 시 석탄·역사박물관이 설치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다가와 시 석탄·역사박물관장인 아소 다쓰오(安蘇龍生)에 의한 기술[安蘇, 2010a; 2010b; 2012]을 토대로 세계유산등록에 관한 다가와 시의 착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sup>3</sup>.

석탄기념공원 내에는 2개의 굴뚝과 수직갱 구조물이 남아 있어서 6개 현 8개 시의 공동제안서에도 이것들을 사례로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바로 그 해 다가와 시 석탄·역사박물관의 관장에 취임한 아소는 이 장소를 보고 이 유산군에 포함되는 야하타 제철소(八幡製鉄所)는 지쿠호의 석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현재의 위치에 세워진 경위가 있기 때문에, 지쿠호의 2개의 굴뚝과 수직갱 구조물이야말로 후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공동으로 제안된 유산 군에 다가와 시의 자산을 추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공동 제안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세계유산등록을 목표로! 수직갱 구조물과 굴뚝을 후세에 전하는 모임’이라 이름 붙인 긴급주민결기대회를 개최,

200명의 주민이 모였다. 그 후 6개 현 8개 시의 공동제안서가 문화청으로부터 '계속심'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다가와 시도 옮겨버로서 회의에 참가하면서, 이 준비에 가담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 세계유산등록추진협의회가 발족, 이 협의회 아래 전문가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등록을 위한 착수과정에서 지역의 청년회의소가 수직갱 구조물을 비추기 위한 LED 등을 기증하는 등, 시민 레벨에서 관심도 높아져 지원 움직임도 생겨났다. 또한 시내에 위치한 후쿠오카 현립대학은 '세계유산을 목표로 한 (구)산업탄광지역 다가와 재생사업~산·관·민·학~'이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이러한 착수 준비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 '세계유산 다가와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해외전문가 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다가와 지구의 40개소에 이르는 탄광 관련 유산을 시찰했다. 이렇게 2009년 규슈·야마구치의 근대화산업유산군이 다시 제안되어 세계유산후보의 국내 잠정 리스트에 기재되게 되었고, 다가와 시의 두 개 자원도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문화청으로부터 몇 가지 과제가 제시되어, 2009년 10월에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에서 다가와 시의 유산은 세계문화유산의 구성 자산으로부터 제외되고, 관련 자산으로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그 요인은 지쿠호의 탄광 관련 자산의 나머지가 아무래도 부분적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점에 있었다. 한편 아소는 제안서에서 지쿠호 탄전의 역사적 중요성이 중시되었다고 서술했다. 특히 제안서에는,

20세기 초엽, 일본에서 가장 큰 탄전으로 성장한 지쿠호 탄전에서 미쓰이 다가와 광산은 현저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다(伊田) 수직갱 유적은 1905~1910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일본의 3대 수직갱(모두 지쿠호에 있음)이라 불리며, 다가와 석탄기념공원을 내려다보는 당시의 수직갱 구조물과 붉은 벽돌의 2개의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징적인 2개의 굴뚝은 1910년에 이다 수직갱에 세워진 것으로, 일본에서 가장 사랑 받고 있는 민요, 탄광노래(炭坑節)에서도 “굴뚝이 너무 높아서 필시 달님도 숨쉬기 어려워”라고 불리며 영원히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커다란 의미에서 지역의 정체성이나 자부심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광 그림은 탄광의 커뮤니티 생활의 전체 모습을 묘사한 일본 탄광 기록화의 대표작이다. 야마모토씨의 특별한 컬렉션은 현재 다가와 시 석탄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유네스코의 세계 사료유산(Memory of the World) 신청이 검토되고 있다[安蘇, 2010a: 3에서 인용].

이라고 써어 있다.

아소[2012: 2]에 따르면 이 전문가 위원회 석상에서 복수의 해외전문가 위원들로부터 야마모토 사쿠베의 그림과 '세계의 기억'에 관한 발언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이란 1992년 유네스코가 시작한 사업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며 중요한 기록유산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エドモンドソン, 2002]. 현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3대 유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 세계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의 기억'이 하나의 '세계유산' 세트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당시 일본에서 '세계의 기억'에 기재된 사례는 없으며, 신청을 위한 국내 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에서의 인지도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광 그림은 세계유산 등록 준비 과정에서 국내의 전문가들이 다가와로 시찰했을 때 가끔씩 다가와 시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개최되던 야마모토 사쿠베 그림 전람회를 시찰하던 해외전문가들에게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安蘇, 2012: 2]. 위에 인용한 전문가위원회의 제안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이 적고 [근대산업화유산군]의 일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된 지쿠호의 탄광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중요성과 지역사회에서 갖는 높은 가치를 평가 받았다. 그리고 마치 문화유산등록의 대안책인 것처럼 이 구성자산으로부터 지쿠호를 제외하는 회의장에서 아마모토 사쿠베의 탄광기록화를 ‘세계의 기억’으로 등록하자는 이야기가 다가와 시에 흘러왔던 것이다. 이 시기부터 다가와 시의 목표는 세계문화유산에서 ‘세계의 기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다가와 시와 후쿠오카 현립대학에 의한 공동제안이라는 형태로 2010년 3월 아마모토 사쿠베의 탄광 기록화 및 기록문서 697점이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에 신청되었다. 그리고 2011년 5월 유네스코의 심사를 거쳐 ‘아마모토 사쿠베 컬렉션’이 ‘세계의 기억’에 등록된 것이다. 그리고 아마모토 사쿠베 컬렉션 등록보다 4년 늦은 2015년에 규슈·야마구치의 각지에서 신청운동이 일어난 근대화산업유산군도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던 것이다.

이상, 세계유산 등록운동 과정은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①지쿠호 탄광은 일본 근대화를 둘러싼 역사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탄광은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 해외전문가들에 의해 지역사회에 제시된 점. 그 덕분에 ②지쿠호 지역에서 탄광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유산’으로 주목받게 된 것, ③하지만 지쿠호에는 두드러진 ‘유산’이 남아 있지 않음이 명확해진 것, 그리고 ④그렇다고 해도 지역 내에는 탄광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탄광의 ‘기억’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지쿠호의 탄광과 관련이 깊은 두 개의 세계유산이 탄생한 덕분에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나 지역을 탄광의 역사와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불식되어가는 듯이 보인다. 더욱이 2014, 2105년에는 일본의 대표적 TV 드라마 시리즈인 NHK 연속 TV소설에서 연달아 지쿠호 탄광이 다뤄졌다. 이에 따라 지쿠호에 관광객도 늘어나면서 지쿠호를 말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 불식에도 박차가 가해졌다. 예를 들어 지쿠호 내에 있는 박물관 학예원은 필자에게 지금까지 아무도 탄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최근 탄광이 주목을 받으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삼촌도 그런 사람 중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탄광 시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졌다. 지쿠호 최후 탄광이 폐광된 것은 약 40년 전이지만, 실제로 1950년대부터 지쿠호에 존재했던 크고 작은 다양한 탄광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는 지쿠호에서도 탄광을 직접적으로 모르는 세대가 태반인데, 그들이 탄광의 역사를 배우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시민들에 의한 새로운 ‘일상적 민속지 실천’이 싹트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오늘날 탄광에 대한 관심의 고양 속에서 태어난 활동을 두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다가와 시 석탄·역사박물관장인 아소 씨에 의해 2008년부터 2015년도에 걸쳐 개최되었던 강좌 ‘탄광의 이야기꾼’이다. 이 강좌는 탄광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탄광에 관한 경험을 듣고 기록하는 모임이다. 이 강좌에서는 아소 씨가 청자가 되고, 그 인터뷰를 참가자가 보는 형태를 취한다. 아소 씨는 강좌를 위해 강사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이 강좌는 박물관장인 아소 씨에 의해 시작된 인터뷰의 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좌에 참가한 필자를 포함한 청중은 소위 ‘공개 인터뷰’라고도 할 수 있는 모임의 관객으로서, 여기서 스스로도 역시 어떤 민속지적 실천을 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실천은 지쿠호 지역에서 이루어진 ‘마을 걷기’라는 이벤트이다. 필자도 조사 중에 몇 차례 마을 걷기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 마을 걷기는 이중의 의미에서 민속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마을 걷기를 하기 전에 가이드를 맡은 시민 자신이 현지를 방문해 인터뷰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다가와 시의 마을 걷기에서 시민은 1년 동안 박물관에서 가이드 양성 강좌를 수강한 후에

가이드를 맡게 된다. 여기서 가이드들은 각각의 담당이 되는 장소에 관해 스스로 조사를 하고, 설명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마을 걷기 행사 전에 이루어지는 회의 때 나온 이야기나 당일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많은 가이드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현지로 찾아오고, 인터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마을 걷기 당일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이드 자신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배운다는 의미에서이다. 예를 들어 앞서 기술한 다가와의 마을 걷기에서는 “예전 탄광촌이었던 이 마을에 영화관이 많이 있었다”는 가이드의 해설을 들은 후, 한 명의 참가자가 이 영화관에 “어린 시절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영화관이 어디에 있었나요?”라고 가이드와 참가자가 함께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장면이 만들어졌다. 또한 어떤 가이드는 마을 걷기 도중에 “여기에 연합군 포로수용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동행중인 박물관장이나 방문지에서 만난 시민에게 질문해서 그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도 했다. 이 때 그는 필자에게 포로수용소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이자 동시에 그 역사에 대해 조사하는 인터뷰어이기도 했다.

세계유산 등록 준비 과정에서 지쿠호 탄광의 역사적 중요성이나 탄광에 관한 ‘기억’을 남기는 것의 의의도 강조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탄광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민속지 실천에 참가시키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오늘날에는 탄광의 경험에 대해 말하기 꺼리는 분위기도 사라져, 탄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쉬워졌다. 지금도 여전히 소수파이긴 하지만, 탄광에 대해 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시민도 늘어났다. 이 청자와 화자의 관심이 합치하는 지점에 마을 걷기와 같은 시민의 실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도 또한 많은 경우 지역주민이 만들어낸 이러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 위에 성립해 있고, 진전되어 온 것이다.

### 3. 사라져가는 흔적과 다양한 ‘일상적 민속지 실천’

#### (1) 탄갱 화가 야마모토 사쿠베 탄생의 배경:

##### 탄광 폐광과 삶의 방법으로서의 ‘일상적 민속지 실천’의 존재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 기록화는 종종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탄광의 세계를 놀라울 정도의 ‘기억’력으로 극명하게 ‘기록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야마모토 사쿠베의 그림을 높이 평가해온 예술가 기쿠하타 모쿠마(菊畑茂久馬)는 야마모토 사쿠베가 눈앞에 모델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발군의 기억력’에 의해 그 그림을 그렸음을 지적한다(菊畑, 1994: 19~25). 또한 후쿠오카시 박물관 관장인 아리마 마나부(有馬学)는 “사쿠베의 그림 제작은 실로 묘사하는 대상을 상실한 순간에 돌연 시작했던 것(有馬, 2014: 16)”이라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야마모토 사쿠베 그림에 대한 평가의 말투는 지쿠호의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의 구성자산으로부터 제외되고, 대신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광기록화가 부상해서 ‘세계의 기억’으로 등록되던 과정과 겹쳐지는 점이 있다. 세계유산 등록운동 과정에서 지쿠호는 탄광의 흔적이 많지만, 이미 명백히 사라져가던 시대에 야마모토 사쿠베의 그림과 문장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 탄광의 존재를 알려주는 흔적이 없다는 인식은, 필자가 조사중 여기저기서 들었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지역주민의 말과도 호응한다.

여기서 무엇인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하는 주민의 이야기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나오가타(直方)시의 ‘갯부의 상’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오가타 시는 지쿠호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다. 이 상은 예전 나오가타 역 앞에 있었으며, 산탄지로서 나오가타 시의 상징이었다. 현재도 역 가까이 찻집을 경영하는 여성은 갯부의 상을 보면 나오가타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하

지만 1996년에 시는 갯부 상 이전을 계획, 나오가타 향토연구회는 나오가타 시에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그 외에도 여러 시민 그룹들이 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개시하면서, 이들 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결국 동상은 시민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는 하천 부지 맞은편으로 쫓겨나고, 새로운 모뉴먼트가 역에 설치되었다. 오늘날 향토연구회의 구성원들이나, 지역의 역사,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에게 있어 ‘갯부의 상’ 이전의 전말은 특히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향토연구회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모두들 갯부의 상을 이전해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우리들이 운동하고 있을 때는 거의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 회장은 탄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탄광에 대한 시민의 시선이 과거 얼마나 차별적인 것이었는가를 강조한다.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 탄광이 부정적 이미지를 환기할 뿐이었던 시절, ‘갯부의 상’을 지역의 상징으로 남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행정을 움직일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탄광이 폐광되던 시기부터 계속된 지역의 혼란과 쇠퇴의 이미지로부터 탈각하기 위해 지쿠호에 있던 탄광의 흔적은 지금까지 점점 사라져갔다. 두 번째 사례는 지쿠호 탄전의 상징적 풍경으로 매우 빈번히 이야기되는 ‘보타산’의 이야기이다. 석탄 채굴이 있을 때 석탄 이외의 암석이나 질이 나쁜 석탄도 함께 채굴되고 석탄 선별 후에는 버려진다. 이를 지쿠호에서는 ‘보타’라 말하며, 이 보타를 버린 장소가 산처럼 솟아오른 곳을 ‘보타산’이라고 부른다. 나오가타 시 석탄기념관 관장은 관광객을 안내하던 도중, 이 보타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타산이 탄광 폐광 후 썩 값에 팔려 건설용 석재가 되거나 산을 깎은 지역은 공업단지로 조성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관장은 그 결과 ‘500여 개에 달했던 보타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로 이야기를 끝맺는다. 이러한 말투도 눈에 보이던 탄광의 흔적이 산탄지의 이미지로부터 탈각을 위해 지쿠호로부터 얼마나 사라져 갔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이 말투는 보타산에 대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와 공통된다.

이상의 두 이야기는 현재 주민들의 관심과는 달리, 예전 지쿠호 사람들이 얼마나 산탄지의 흔적을 없애고자 했는가를 가르쳐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탄광을 없애려고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나오가타 향토연구회 회원들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이들 움직임은 탄광에서 일한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 현저했던 것 같다. 이들 실천가들은 예전 탄광 노동자를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작업도구나 그림, 문장, 그리고 그들이 찍은 사진들을 수집했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일련의 세계유산등록운동이나 ‘야마모토 사쿠베 컬렉션’에 의해서만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가 야마모토 사쿠베도 지쿠호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 속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마모토 사쿠베(이하 ‘사쿠베’로 표기)는 1892년 현재의 지쿠호에서 태어났다. 7살 때부터 갯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1906년, 14살에 탄갱부로서의 생활을 시작, 1955년에 당시 근무하던 탄광이 폐광하기 까지 약 50년간 지쿠호의 탄광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그 후 1957년에 폐쇄된 탄광의 야간 경비 직원으로 일하던 도중, 일기의 여백이나 광고지 뒷면 등에 탄광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1961년 근무지인 광업소 회장의 눈에 띄게 되어 이 그림의 출판계획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 『메이지·다이쇼 탄갱 두루마리 그림』으로 사쿠베의 첫 책이 출판되었다. 당시는 탄광이 하나 둘 폐광해가던 시기였다[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 田川市美術館, 2008; 森本, 2008, 田川市 online: 『山本作兵衛氏 炭坑の記録画』].

그 후 사쿠베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향토사가이자 다가와 시립도서관 관장이기도 했던 나가스에 도시오(永末十四雄)이다. 나가스에는 1964년 다가와 향토연구회에서 ‘탄광자료수집운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사쿠베도 찬동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



소는 사쿠베가 탄광의 종언에 뒤이은 기록운동에 공명했던 것이라고 필자에게 말했다. 한참 후에 이 때 그려진 그림이 '세계의 기억'의 일부로 등록되게 된다.

또한 필자가 여기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관점에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사쿠베를 자주 찾아왔던 기록문학 작가 우에노 히데노부(上野英信)라는 존재이다. 사쿠베의 이야기는 우에노의 소개로 1967년 NHK TV에서 다루어졌다. 우에노는 학교에 다니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쿠베가 만년(晩年)에 이 정도의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에 감동했다고 한다[上野, 2012: 38]. 하지만 우에노의 삶의 방식이야말로 실로 일생을 건 탄광노동자에 대한 필드워크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지쿠호의 작은 마을인 구라테마치(鞍手町)로 이주해, 평생 동안 탄광노동자의 모습을 계속 추적했다. 사쿠베는 그러한 우에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탄광 생활을 이야기해주거나 갱 안에서 불렀던 노동가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우에노의 주변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걸고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을 행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갱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 책을 썼던 작가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森崎, 1970], 지역주민으로서 많은 여성 갱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을 일생의 작업으로 해온 이데가와 야스코(井手川泰子)[井手川, 1984], 지쿠호 신사의 아들로 태어나 제 2차 세계대전기의 조선인강제연행의 역사를 추구해온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예를 들어[林, 1981], 나가스에와 아소로 대표되는 많은 향토사가나,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고자 했던 학교 교원들이 그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탄광의 흔적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지쿠호 지역을 걸으면서, 탄광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미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행위였다. 1970년대부터 과거 탄광에서 일했던 여성 갱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해 온 이데가와와 그 저서의 첫머리에, 한 여성 갱부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여성 갱부는 확실히 사라져가고 있다. 지쿠호의 하나의 종언을 느끼게 해준 다가 씨의 죽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에게 있어 지쿠호는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나는 계속해서 찾아가고자 한다[井手川, 1984: 10]." 여기에는 여성 갱부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찾아온 이데가와와 실천이 나타난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 자체이다. 지쿠호에는 오늘날 '유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적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탄광에서의 노동과 생활, 여성의 갱내 노동이나 조선인 강제연행, 그리고 폐광과 그 후 혼란 등 다양한 '기억'이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쿠호를 걷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의해 그것을 '기록'하고자 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이 이 땅에 뿌리내려 있는 것이다. 사쿠베는 그러한 민속지적 실천 속에서 발견된 특필해야 할 인물 중 한 명이며, 또한 주체적으로 실천에 참가했던 실천가이기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쿠호에는 이러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으로 발견된 인제가 사쿠베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앞서 기술한 '탄광자료수집운동'에 찬동한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로서 원래 탄광노동자이자 사진가인 하시모토 마사카츠(橋本正勝)가 있다[田川郷土研究会, 1965: 53]. 하시모토는 보타산의 사진 50매를 이 운동을 위해 기증했다. 하시모토는 현재도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탄광에 대한 증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이상으로, 아마모토 사쿠베와 폐광 이후 계속 존재해온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필자의 조사도 이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실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는 지쿠호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과 세계 유산등록운동에 의해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탄광을 둘러싼 현재의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식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필자 자신의 관심의 접점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내러티브 연구를 지지하는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

### TV 프로그램 「신일본풍토기(新日本風土記)」촬영 현장을 조사 필드로

지쿠호에 존재하는 다양한 ‘일상적인 민속지적 실천’과 필자 자신의 관심과의 뒤얽힘 속에서 인터뷰의 장이 만들어진 사례로, 지금부터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다. 그것은 NHK의 BS 채널에서 방송된 <신일본풍토기-지쿠호->라는 프로그램이다. 상영시간은 약 1시간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필자의 조사가 방송으로 나오게 되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신일본풍토기>는 ‘일본 각지에 남겨진 아름다운 풍토나 마쓰리, 삶이나 사람들의 활동을 그린 본격적인 기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日本放送協會 online: 『新日本風土記: 番組情報』]이며, 몇 개의 짧은 이야기로 마치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이번엔 다루어진 <신일본풍토기-지쿠호->는 9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그 다섯 번째 이야기로서 약 9분이 필자의 조사를 둘러싼 이야기로 제작되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이야기는 방송 제작자, 지역 사람들, 그리고 조사자인 필자 자신의 상호 행위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우선,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5개의 장면에 대해 설명한다. 장면 1: 탄광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Y씨와 대학원생(필자)이 탄광의 갱구를 보러 가는 장면, 장면 2: 대학원생이 도쿄에서 지쿠호에 필드워크를 위해 이사온 것을 설명하는 장면, 장면 3: 그녀가 탄광 경험을 가진 한 분의 고령 남성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장면, 장면 4: 그녀가 탄광 폭발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을 방문하는 장면, 그리고 장면 5: 대학원생이 코멘트를 하는 장면으로 총 다섯 장면이다. 여기서 장면 1과 3은 기존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뒷받침으로 만들어진 촬영 현장이었다.

장면 1은 필자가 Y씨의 안내로 과거의 탄광 지역을 방문하는 장면이다. 프로그램에서 이 장면은 대학원생이 지역 주민과 Y씨와 동행하면서 산 속에서 과거의 탄광의 갱구의 흔적을 발견해가는 영상을 통해 과거에 소규모의 도굴 파기가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편집되었다. 이 짧은 장면 뒤에 Y씨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Y씨는 취재 당시의 10년 정도 전에 28세의 나이에 심장병을 앓고, 한 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Y씨는 도서관에서 지역에 관한 자료를 읽게 된다. 특히 그는 탄광에 관한 책을 다수 읽게 되고, 그 곳이 현재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탄광의 유적 탐색을 하게 된다. 그의 필드워크란 항공사진이나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지도를 겹쳐 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탄광의 흔적을 확인해가는 것이다. 꽤 험준한 산이나 덩불 속도 들어간다. 필드워크 후에는 관련 보고를 블로그에 올린다. 처음엔 오로지 유적에 흥미가 있었던 Y씨였지만, 탄광 탐색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후 과거 여성 갱부였다는 한 여성과 만났다. 그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낙반 사고로 죽었지만, 거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때 Y씨는 살아 있는 한 자신이 각지에서 본 것, 들은 것을 계속해서 말해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지금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심인 활동이 되었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장면 1에서도 Y씨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방식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동행해준 한 지역 주민도 Y씨가 유적 탐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이다. 취재차 방문한 갱구 하나는 이 주민이 사는 집 뒷산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Y씨의 활동은 최근 신문 등의 미디어에도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어 활동의 폭도 넓어졌다. 2016년에는 지역의 소학교에서 초청 교사로 탄광의 유적지를 둘러싼 수업을 시작하거나, 젊은 교원들의 연수로 지역의 탄광 유적지를 안내하면서 스스로가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일도 했다. 프로그램의 초점은 지역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산길로 들어가 예전 있었을 탄광의 흔적을 확인해가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Y씨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이 이 장면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필자가 갱구를 발견하는 이 장

면은 실제로는 Y씨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장면 3도 몇 개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장면 3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일본에 건너온 재일 코리언 2세이자, 자택의 바로 뒤에 만들어진 쇼간보타이(松岩菩提)라고 하는 공양탑에 납골된 유골의 유족인 T씨에 관한 장면이다. 인터뷰에서 필자는 T씨에게 자신과 쇼간보타이 공양탑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또한 재일 코리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는 그의 실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T씨와의 인터뷰의 배후에 있는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은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시민의 활동이다. 모임의 사무국장이자 창시자 중의 한 명인 어떤 남성은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의 역사에 대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모임의 발단은 1984년에 <지쿠호>에서 일본인과 재일한국·조선인의 역사를 찾아가는 모임이라는 필드워크를 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의 방문지에 탄광사고로 희생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양탑이 있었고, 공양탑을 지키는 시민들과 만났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5년에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몇 개의 공양탑에서 강제연행 희생자에 대한 공양이나 일본에 남은 한국·조선인의 유골을 고향에 돌려주기 위한 조사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된 사람들과 일본인의 관계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모임이 1년에 한 차례 빠트리지 않고 했던 활동이 지쿠호 필드워크이다. 사무국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흥분되었던 실천은 새로운 사람과 만나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필드워크 사전조사였다고 한다. 1992년 필드워크 사전답사 때 회원들은 어떤 탄광의 공동묘지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묘지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조선인도 매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역주민과 협력해서 여기에 공양탑을 세울 운동을 일으켰다. 그때 만난 사람이 T씨이다. T씨는 공양탑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후 유족으로서 공양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많은 미디어나 인권교육 담당자가 T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다. 1998년에 발행된 후쿠오카 현의 인권교육부독본의 중학생 관에는 T씨를 모델로 한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도 게재되어 있다[同和教育副読本作成委員会, 1998].

T씨는 프로그램을 위한 인터뷰에서도 지금도 소학생이나 중학생 앞에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으며, 강의도 하러 가는 등 바쁘다고 이야기했다. 이 장면에서 T씨는 어린 시절 탄광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화장하는 것을 도왔던 것, 일본인과 조선반도 출신의 사람들의 매장 방식이 달랐다는 것 등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T씨가 지금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해왔던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방영된 장면의 일부는 필자의 인터뷰 당시가 아니라, 사전에 NHK가 T씨를 취재하러 왔을 때의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필자에게 이야기해준 것과 큰 틀에서는 일치하고 있었다. T씨와의 인터뷰는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의 30년 이상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결과로서 실현된 것이었다. 그리고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인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은 다양한 교육현장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다. 필자에게 이야기해주었던 T씨의 이야기는 이들 다양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 가운데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려져 온 이야기였다.

이들 기존의 '일상적인 민속지적 실천'에 의거한 인터뷰였던 장면 1과 장면 3에 비한다면, 장면 4의 인터뷰는 TV 디렉터와 필자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장면이었다. 디렉터가 안내해준 곳은 탄광사고로 남편을 잃은 유족 여성이 사고 후 거주한 사택 거리의 한 지구이다. 계획은 여기서 산 경험이 있는 S씨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다. 디렉터는 사전에 여기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탄광의 폭발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도 좋다고 나선 S씨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있어 디렉터는 필자의 연구과제에 덧붙여 '사고는 유족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것은 동일한 처지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일까, 그리고 외부의 사람에게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제안했다.

필자들은 S씨가 이전에 살던 사택 앞에서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다. 확실히 S씨는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사고 후 이 집에 이사 온 경위 등에 대해서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야기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고 후 유족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하지만 사고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말한 경우는 없었는지 물어봤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말하기의 한 전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입에서 생생하게 이야기된 것은 오히려 사고 후의 아이들 양육 이야기였다. 만약 그대로 아이들 양육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우리들은 S씨의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TV카메라를 앞에 두고 S씨에게 그 이상 ‘조사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은 조심스러웠다. 필자, 디렉터, S씨 삼자의 대화는 서로 맞물리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S씨와의 인터뷰에서 필자가 의존할 만한 기존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필자와 디렉터는 ‘탄광의 기억과 계승’이라는 엉뚱한 관심을, 그에 대해 이야기해온 적이 없는 S씨에게 향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짧고 불충분한 인터뷰였지만, 거기에는 제각각이면서 ‘탄광의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테마를 둘러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장이 생겨났다.

프로그램에서는 S씨와의 인터뷰 장면 다음에 필자가 지쿠호의 주택가를 걷는 영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흐른다. “땅의 밑바닥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목숨,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사라져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광의 기억을 말하는 사람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필자의 모습이 보인다. 실제로는 디렉터도 인터뷰어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필자야말로 인터뷰의 실천자로서, 지쿠호에 이사 와서 지쿠호를 걸으며 탄광의 ‘기억’을 찾아가는 민속지적 실천의 실천자로 그려졌다. 이렇게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필자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사라져가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지쿠호에서 되풀이되어 온 실천의, 새로운 또 하나의 형태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은 지쿠호 지역 내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탄광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필자의 연구 관심이 서로 맞물리면서, 탄광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장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기존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후원에 힘입어, 때로는 그것을 덧칠하면서 민속지적 실천을 행하는 주체로서 부상하게 된다. 여기서도 또한 사라져가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한다는 테마가 반복되는 것이다.

#### 4. 결론

TV 프로그램의 취재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탄광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한 필자의 매일의 조사는 탄광의 ‘기억’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매개로 생겨난다. 그리고 필자가 수행하는 인터뷰 하나하나도 탄광의 흔적이 사라져가는 지금, 어떻게든 그 ‘기억’을 붙잡아두고, 계승하고자 하는 실천 속에 편입되어 간다.

본고는 (구)산업지역인 지쿠호에서 현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민속학적 실천을 슈미트-라우버의 논의에 의거하면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필자의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이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후원이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본론의 논의를 되돌아보며, 처음에 제시한 두 개의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본론을 마무리하고 싶다.

첫 번째 물음은 ‘일상적인 민속지적 실천’은 어떠한 사회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며, 어떠한 목적을 갖고, 또 어떠한 필드워크나 인터뷰 문화를 만들어내는가 라는 것이었다. 지쿠호에서 탄광의 폐광 이후,

탄광은 '부(負)의 유산'으로 간주되어, 조금이라도 빨리 그 흔적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라져가는 탄광의 '기억'을 '기록'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실천이 싹트고, 오늘날까지 면면히 계속되어 온 것이다. 특히 탄광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자전적인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현지를 돌아다니는 필드워크나 탄광 시대를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사진이나 그림 등과 같은 그들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자료의 수집 등의 활동을 했다. 최근 '세계의 기억'에 등록된 야마모토 사쿠베도 그러한 시민의 실천 속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며,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에 호응하면서 많은 그림을 그려온 것이다.

또한 20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세계유산 등록을 향한 활동 과정에서 다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지쿠호에는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유적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한편으로 그 대신에 야마모토 사쿠베가 '세계의 기억'에 등록된 것은 지쿠호에 귀중한 역사와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남기는 것의 의의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렸다. 세계유산 등록을 향한 준비 과정에서 탄광의 흔적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탄광의 '기억'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다시 싹트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고법은 폐광 이후 스스로의 삶의 방식으로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을 행해온 사람들의 의식과 겹치는 점이 있다. 마을 걷기 이벤트로 대표되듯 세계유산을 둘러싼 과정 속에서 지쿠호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완화되고, 지쿠호에 거주하는 보다 폭 넓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일상적인 민속지적 실천'도 폐광 이후 되풀이되어온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토대 위에서 개화하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 제시한 두 번째 물음은 필자 자신의 조사가 이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TV 프로그램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연구자인 필자의 인터뷰는 지역 사람들의 (때로는 매스미디어의) 지지 아래 비로소 성립한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지지를 받으면서 때로는 새로운 이야기의 장을 만들어내면서 필자 자신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민속지적 실천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도 거기에 휘말려가는 필자의 민속지적 조사도 탄광이 '유산'화되고, 탄광노동자의 인생이 '기억'화 되어가는 이 시대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지쿠호에서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은 탄광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의한 실천과 항상 맞물리면서 실천되어온 것이다.

오늘날 기억의 계승이라는 문제는 전쟁체험이나 세계의 대재난과 같은 사건 등에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체험자가 사라진 시대에 그 체험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라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민속학은 민속지적인 방법과 인식론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케이션 스타일에 민감하게 녹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장기로 하는 학문이다. 오늘날 민속 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체험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온 지역주민이 만들어온 '일상적인 민속지 실천'의 존재방식 그 자체를 배우면서, 이를 통해 기억을 계승해가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이야기나 종이상의 기록에 그치지 않는 다양한 기억의 계승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독일에서 진전되고 있는 문화적·사회적 기억을 둘러싼 논의와 독일 민속학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고를 더욱 심화해가고 싶다.

## 注

- \* 본고는, Johannes Moser (Ed.) 2018, *Themen und Tendenzen der deutschen und japanischen Volkskunde im Austausch Münchner Beiträge zur Volkskunde*, vol. 46에 게재된 줄고 “The Study of Narrative and “Everyday Ethnographic Practices”, Heritage and Memory in Chikuhō, a Former Coal Mining Area in Japan”의 일본어 번역이다. 이 원고는 2016년10월28일에 개최된 일독 민속학 공동개최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움 “Perspectives and Positions of Cultural and Folklore Studies in Japan and Germany” 「독일과 일본에서 민속학의 시점과 위상」에서 “Heritage, Memory, and “Everyday Ethnographic Practices” in Chikuhō, a Former Coal Mining Area in Japan”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포스터 발표를 논문화한 것이다. 이번의 재 게재에 있어 표현 등을 다소 수정했다. 단, 본고에서 논해지고 있는 필드워크에서 사실이나 사람들의 말하기와 이에 대한 해석은 본고를 집필한 2016년 시점에서 필자가 파악한 범위 내의 것이다.
- 1 김현정은 문화인류학자 전경수의 논의[조, 1990: 137~138]를 인용하면서 ethnography의 번역어로서 ‘민

족지’가 아니라 ‘민속지’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민속학과 인류학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김현정은 그 이유를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를 “기술”한다는 의도를 “민속지”쪽이 보다 잘 드러낸다는 전경수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다[金, 2016: 15]. 본고도 전경수와 김현정의 주장에 따라 ethnography의 번역어로서 ‘민속지’라는 표기를 채용한다.

- 2 이하 본 절에서 지쿠호의 역사에 대한 기술은 永末[1973], 長弘[2012]을 참고하면서, 필자가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들은 지식에도 기초해 재구성하고 있다.
- 3 이 과정을 정리하는데 있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홈페이지도 참조했다[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online: 『世界遺産登録までの道のり』].
- 4 이하, 갱부의 상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사 중 현지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더해, 『향토 나오가타: 갱부의 상을 생각하는 특별호』[直方郷土研究会編, 1997]의 기술을 참고해서 집필했다.

## 참고문헌

- 安蘇龍生, 2010a, 「世界文化遺産登録の取り組みから学んだこと, 考えたこと」,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だより』 7.
- 安蘇龍生, 2010b, 「世界文化遺産登録への取り組み～経過と意義～」,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館報』 3.
- 安蘇龍生, 2012, 「『世界記憶遺産・山本作兵衛コレクション』と今後の山本研究への試論」,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館報』 5.
- 有馬学, 2014, 「消滅した<近代>と記憶遺産: いま, 作兵衛画の何を問題にすべきか」, 『有馬学, マイケル・ピアソン, 福本寛, 田中直樹, 菊畑茂久馬編著, 『山本作兵衛と日本の近代』, 弦書房.
- 五木寛之, 2004, 『青春の門: 筑豊篇(上・下)』, 講談社.
- 井手川泰子, 1984, 『火を産んだ母たち: 女坑夫からの聞き書』, 葦書房.
- 上野朱, 2012, 「世界を掘り抜け」, 『リベラシオン・人権研究ふくおか』 146.
- 上野英信, 1960, 『追われゆく坑夫たち』, 岩波書店.
- エドモンドソン, レイ, 2002, 『ユネスコ「世界の記憶」: 記録遺産保護のための一般指針(2002年改定版)』, ユネスコ(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 情報社会部, 文部科学省HP参照([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other/micro\\_detail/\\_icsFiles/afiedfile/2017/02/13/1354665\\_01.pdf\(2018.12.2.\)](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other/micro_detail/_icsFiles/afiedfile/2017/02/13/1354665_01.pdf(2018.12.2.))).
- 及川祥平, 2014, 「ハンブルク大学民俗学 / 文化人類学研究所における民俗学教育について」, 『常民文化』 37.
- 菊畑茂久馬, 1994, 「川筋画狂人・山本作兵衛」, 『絵画の幻郷: 菊畑茂久馬著作集3』, 海鳥社.
- 金賢貞, 2016, 「韓国民俗学は『当たり前』を捉えうるか: 韓国国立民族博物館の二つの民俗誌(2007~14年)を中心に」, 『日常と文化』 2.
- 木村至誠, 2014,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 「軍艦島」をめぐるポリティクス』,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國友宏俊, 2009, 「我が国石炭政策の歴史と現状」,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http://www.enecho.meti.go.jp/category/resources\\_and\\_fuel/coal/japan/pdf/23.pdf\(2018/02/16閲覧\)](http://www.enecho.meti.go.jp/category/resources_and_fuel/coal/japan/pdf/23.pdf(2018/02/16閲覧))).
- Schmidt-Lauber, Brigitta, 2012, Seeing, Hearing, Feeling, Writing: Approaches and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Ethnological Analysis of the Present, in Regina F. Bendix, and Galit Hasan-Rokem(eds.), *A Companion to Folklore*, Wiley-Blackwell.
- 田川郷土研究会, 1965, 「会報: 炭鉱資料収集運動」, 『郷土田川』 24.
-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 田川市美術館編, 2008, 『二本煙突築百周年 /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開館二十五周年記念 特別企画:

- 炭坑の語り部 山本作兵衛の世界 584の物語,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 田川市美術館.
- 筑豊石炭礦業史年表編纂委員会編, 1973, 『筑豊石炭礦業史年表』, 西日本文化協会.
- 全京秀, 1990, 『물상화된 문화와 문화비평의 민속지론: 민속지의 실천을 위한 서곡(物象化した文化と文化批評の民俗誌論: 民俗誌の実践のための序曲)』, 『현상과 인식(現象と認識)』 14(3).
- 土門拳, 1960, 『筑豊のこどもたち』, バトリヤ書房.
- 同和教育副読本作成委員会, 1998, 『同和教育副読本「かがやき」中学校用』, 福岡県教育委員会.
- 林えいだい, 1981, 『強制連行・強制労働: 筑豊朝鮮人坑夫の記録』, 現代史出版会.
- 永末十四雄, 1973, 『筑豊: 石炭の地域史』, 日本放送出版協会.
- 長弘雄次, 2012, 『筑豊の石炭に生きた日々の記憶: 筑豊炭田開発技術史論文選集』, 文字の花書房.
- 直方郷土研究会編, 1997, 『郷土直方: 坑夫像を考える特別号』.
- 明治大正炭坑絵巻刊行会編, 1963, 『明治大正炭坑絵巻』, 明治大正炭坑絵巻刊行会.
- 森明子, 2009, 『ドイツの民俗学と文化人類学』,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33(3).
- 森崎和江, 1970, 『まっくら: 女坑夫からの聞き書き』, 現代思潮社.
- 森本弘行, 2008, 『炭坑記録画と山本作兵衛』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 田川市美術館編, 『二本煙突築百周年 /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開館二十五周年記念 特別企画: 炭坑の語り部 山本作兵衛の世界584の物語』,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 田川市美術館.
- レーマン, アルブレヒト, 2005, 『森のフォークロア: ドイツ人の自然観と森林文化』, 法政大学出版局.
- レーマン, アルブレヒト, 2010, 『意識分析』, 『日本民俗学』 263.
- 山本作兵衛氏の炭坑の記録画並びに記録文書の保存・活用等検討委員会, 保存調査検討部会, 活用調査検討部会, 受入環境調査検討部会, 記念式典検討部会, 2012, 『山本作兵衛氏の炭坑の記録画並びに記録文書の保存・活用等に係る検討結果報告書』, 田川市HP参照([http://www.joho.tagawa.fukuoka.jp/y\\_sakubei/kiji003897/\(2018.12.02\).](http://www.joho.tagawa.fukuoka.jp/y_sakubei/kiji003897/(2018.12.02).)).
- 온라인
- 田川市, 『山本作兵衛氏, 炭坑の記録画』: [http://www.y-sakubei.com/\(2018.12.02\)](http://www.y-sakubei.com/(2018.12.02)).
- NHK(日本放送協会), 『新日本風土記: 番組情報』: [http://www4.nhk.or.jp/fudoki/21/\(2018.12.02\)](http://www4.nhk.or.jp/fudoki/21/(2018.12.02)).
- 福岡県企画・地域振興部調査統計課, 『人口移動調査 第1表 平成28年(2016)』: [http://www.pref.fukuoka.lg.jp/dataweb/2016-1hyou.html\(2016.08.18.\)](http://www.pref.fukuoka.lg.jp/dataweb/2016-1hyou.html(2016.08.18.)).
-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世界遺産登録までの道のり』: [http://www.japansmeijiindustrialrevolution.com/history/index.html\(2016.8.28\)](http://www.japansmeijiindustrialrevolution.com/history/index.html(2016.8.28)).
- TV 프로그램
- NHK(日本放送協会)BSプレミアム, 2016, 『新日本風土記: 筑豊』(2016年6月24日放送, 7月1日再放送).